

전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 창립

오늘 총회 ... 2016년 5월5일 개막, 15개국 88만명 참여 예상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가 24일 이낙연 도지사와 디자인 및 친환경 관련 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전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발표했다.

디자인박람회는 이미 성공 개최 평가를 받는 여수세계엑스포, 순천국제제철박람회 등과 함께 전남도가 추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중 하나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제정과 임원 선임, 사업계획 수립, 예산안 승인 등이 이뤄진다. 또 다음달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및 법인 등기를 마무리한 뒤 조직위 사무국 개소, 박람회 홈페이지 및 상징물 매뉴얼(EI) 제작, 전시관 시설계약 등 으로 박람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게되며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이사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 박람회 개최를 위해 2012년 기본계획 수립 뒤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CSID)의 국제인증도 취득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추진 중이다. 지난 1월에는 박람회 조직위 설립과 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도 마쳤다.

박람회 개최 장소로 지난 2012년 국제농

업박람회가 열린 나주시 산포면의 전남도 농업기술원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등 신속 박람회를 지향할 방침이다.

디자인 박람회는 2016년 5월 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며 전 세계 15개국 800여 디자인업체가 참가하고 88만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람회는 3개의 주제관과 3개의 특별시설로 이뤄진다. 주제관은 스마트 그린관, 에코농수산관, 미래관이 설치된다. 특별시설은 전통공연관, 남도문화관, 국제관이 설치된다. 전남이 가진 경관, 역사, 문

화, 음식 등 관광문화자원에 디자인 방법을 접목해 새로운 디자인 영역을 창출하고 국제적인 변화를 반영한 세계적 디자인상품을 한자리에 모을 계획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박람회를 통해 친환경, 고품질의 전남 농수축산물이 잘 디자인된 포장재와 함께 국제적인 프리미엄 상품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수요집회에 휘날리는 태극기

23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가운데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일본대사관. /연합뉴스

장휘국 시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협 회장에

장휘국(64) 광주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23일 오후 서울 양재동 테케이호텔에서 직선 2기 교육감협의회 첫 임시총회를 열어 임기 2년의 새 회장으로 장 교육감을 추대했다. 부회장은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보수 성향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나란히 선출됐다. 감시는 중도보수 성향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맡게 됐다.

장 휘국 회장은 1989년 전교조 창립 과정에서 해직됐으며 복직 이후 전교조



광주지부장, 광주시교육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장 회장은 교육감협의회가 진보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최연장자이고, 협의회 부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어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장 교육감이 회장에 선출됨에 따라 조만간 광주시교육청에 협의회 사무국이 구성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정부부지사에 우기종 전 통계청장 내정

전남도 정부부지사에 우기종(58·사진) 전 통계청장이 내정됐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23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갖고 신임 정부부지사에 우기종 전 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우 전 청장은 신안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세계와 금융 등을 두루 거친 재무관료 출신으로 1980년 행정고시(2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옛 재무부에서 국제조세과와 관세협력과, 증권정책과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총무과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공직기강 비서실 행정관과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민경제비서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이 지사는 “우 전 청장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접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 정부부지사로 내정했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논란이 된 지니계수 문제는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이런 논란이 정부부지사 임명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임 우 부지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년 6개월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아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이 경력으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4대강 추진 주요 인사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특히 통계청장 재임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회 불평등 정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新) 지니계수를 개발했으나 청와대의 외압으로 대선 때가 지 공표하지 않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우 부지사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등 논란으로 국정감사 때 파행할 뻔하기도 했다.

권오봉 현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경제 특보로 자리를 옮겨 전남도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조직개편안이 이날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일부 산하기관장들의 ‘밥그릇 지키기’

정신건강센터장·체육회 상임부회장·DJ센터 사장 등 ‘임기 지키자’ 결의 회동 ... ‘물갈이론’ 수면위로

민선 5기 때 채용했던 광주시 산하 기관장들이 잇따른 잡음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대대적인 ‘물갈이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장들이 민선 6기 이후 자체 회동을 갖고 임기를 지켜내자는 결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임기보장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정부의 정신보건서비스사업으로 개소한 광주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최근 2년간 전체 정원 25명 중 17명이 사직서를 내고 떠날 정도로 조직 내부가 시끄럽다.

특히 이 센터는 광주시민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프로그램

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수많은 직원의 사퇴로 정신건강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 센터의 한 직원은 최근 광주시 감사실에 보낸 문서를 통해 “센터장은 주 근무시간이 16시간인 비상근임에도 2012년 200만원에 불과하던 월 보수가 1년만에 400만원으로 급상승하는 등 국가예산마저 낭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센터장의 여러 문제를 광주시에 수차례 고발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국립나주병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현 센터장은 당시에도 독단적 운영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났다”면서 “센터장이

편애하는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배안 광주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모든 것이 오해이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이 힘들어하고 그만두기도 했다”면서 “접대강요 등도 직원들과 친해지기 위한 과정 중 일부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시체육회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다수의 시 산하 기관에서도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선거개입설, 직원과의 마찰 등 갖은 이유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김홍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지난 4년간 매월 500만원씩 개인통장으로 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를 받았다가 관련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부회장은 또 연간 3000만원 한도의 업무추진 신용카드까지도 추가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병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지난해 타지역 출장에서 1시간짜리 회의에만 참가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골프와 요트 투어에 할애하는가하면 외부 출장 때 교통편의 좌석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질책하는 등의 구태를 보여 내부의 불만이 높다.

특히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경우 지금까지 대항무역투자진흥공사 출신으로만 센터장을 채용하면서 내부 승진을 바라던 직원의 근무의욕마저 꺾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한 관계자는 “행사유치를 위해서는 코트라 출신 사장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현재 센터의 예약이 넘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트라 사장이 도대체 무슨 행사를 유치해왔는지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권은희, ‘재산축소 의혹’ 보도 언론사 정보도 청구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측이 23일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과 함께 언론중재위 정보도 청구를 했다.

권은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뉴스타파 측에 22일까지 ‘권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제하의 지난 18일자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공식선거법상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에도 정정보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후보 선대위는 “소명자료를 충실히 선관위에 언론중재위에 제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선관위와 언론중재위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권은희 후보가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 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권 후보 남편의 회사가 수십억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점

지멘스 상무점

약형빌딩5층 501호

동행(문선시장)

아바폴드2차량

SINCE 1988

chilman.co.kr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땀땀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